

뉴스 & 뉴스

새 포교사 4백명 품수

제3회 조계종 포교사교시 합격자 4백여명에 대한 연수 및 자격품수식이 8일과 15일 서울과 마곡사 범어사 전 북불교회관에서 열렸다. 8일 조계종총무원에서 열린 품수식에는 지난해 11월 실시했던 제3회 포교사교시 합격자 1백여명이 참석했다.

선암사 불화 3점 도난

조계산 선암사(주지 지암) 응진전과 불조전에 봉안돼 있던 불화 3점이 도난됐다. 6일 오전 3시경 도난사실을 처음 발견한 향산사에서 따르면 세불예불을 드리기 위해 응진전에 가 보니 자불상이 절단된 채 응진전 후불탱화 1점과 불조전 불화 2점이 칼로 도려져 없어졌다.

가야산 순환도로 반대

해인총림은 10일 해인사 청화당에서 98년도 제2회 산중인회를 열고 성철스님 부도전중 사리탑을 완안대로 건립하되 1백8명으로 계획했던 기단 중 행자교육원과 단일계단의 교수사로 활용하게 된다. 영산율원의 첫 졸업식은 전계대화상 청하스님, 원로의원 성수스님, 도원스님,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 해인사 율원장 종진스님, 전 범어사주지 정관스님, 해인사 기획실장 무관스님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 새 율사스님들을 축하했다.

자원봉사단 확대 운영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은 창립 4년째 맞는 올해를 질적 성장의 해로 정하고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치중하기로 했다. 복지재단은 10일 27개 수탁 복지시설 중 아동·노인·장애인 등 종류별로 1개씩의 직영시설을 확보하여 시범운영하기로 하는 등 98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경제살리기 100일운동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는 현월운동은 건강관리는 물론 의화를 절약하는 한 방법(월액 수입액은 연간 3천만원으로 한화 약180억원)이란 취지 아래 3월14일부터 6월21일까지 1백일간 '경제를 살리고 이웃과 함께'란 주제로 현월운동 및 회원 배가운동, 장기기증 운동을 펼친다.

맑고향기롭게모임(회주 법정)은 실직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모임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길상사내 소법당에 마련한다. 소법당은 50여명의 인원이 사용할 수 있다. 이 모임에는 23일 개인식과 함께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10시~오후5시까지 문을 연다.

실직자 모임터 '내일을 준비...'

맑고..., 길상사에 개원

를 제공하기도 한다. 사경용품은 무료로 제공하고 사경과기도법도 안내한다. 또한 갑작스런 실직으로 상처입은 마음을 다스리기위한 참선정진 캠프 및 명사초청 강연회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02)741-4696

파계사 영산율원 율사 4명 첫 배출

파계사 영산율원(율원장 철우)이 첫 졸업식을 갖고 4명의 율사를 배출했다. 12일 봉행된 영산율원의 제1회 비니문강 수료식에서 해는·대경·희문·진묵스님이 2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문강함을 받았다. 스님들은 조계종 행자교육원과 단일계단의 교수사로 활용하게 된다.

영산율원의 첫 졸업식은 전계대화상 청하스님, 원로의원 성수스님, 도원스님,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 해인사 율원장 종진스님, 전 범어사주지 정관스님, 해인사 기획실장 무관스님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 새 율사스님들을 축하했다.

돈벌이 때문에 뿌리째 흔들려서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조각회는 앞으로 각 종단에 공문을 보내 전통사찰의 불사에서 수입미술품의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내부적으로는 무분별한 수입을 자제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 박탈까지 고려하기로 했다. <이경숙 기자>



○영산율원이 12일 첫 졸업식을 갖고 4명의 새 율사를 배출했다. 사진 맨 뒷줄 왼쪽부터 희문·진묵·대경·해능스님.

“불교미술품 수입 자제하자”

문화재조각회 '무분별 수입 철회' 성명... 전통 변질 우려

문화재조각가능력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재조각회(회장 이재순, 이하 '조각회')는 11일 교계기자 회견을 갖고 '불교미술품의 무분별한 수입을 철회하라'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각회는 "수년전부터 베트남 중국 미얀마 등 외국에서 불상 불단 석등 석탑 불구용품 등의 불교미술품들이 재료로 뿐만 아니라 완성품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이는 점점 늘어나 지난해 경우 수입품경비로 대략 백억원가량이 지출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각회는 "외국에서의 제작은 값싼 임금과 재료비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남기기 때문에 일부 불지각한 인사들에 의해 국내에서 제작된 것처럼 속여 팔리고 있고 일부 사찰들은 단지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불사에 수입미술품을 수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일이 지속될 경우 고유한 특색과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의 불교문화가 변질될 가능

추경, 올 문화재보수비 7백66억원

작년대비 30% 줄어 올해 문화재보수비가 8백33억원에서 7백66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정부가 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문화재 보수 사업비는 이미 삭감된 8백33

억원에서 67억원이 추가로 삭감됐다.

이는 작년 문화재보수비에 비해 30%나 줄어든 것이어서 올 문화재 보수관리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또 전국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및 15억원은 전액 삭감돼 사업 자체가 무산돼 상보문화재 관리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조비 동결 생활비 폭등 후원금 중단

불교복지시설마다 '三重苦'

노인·아동·장애인등 입주희망자 '급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IMF 체제에 따른 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까지 줄어들거나 동결시켜 복지시설 운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불교 복지시설은 여기에다 시설 난방비, 식비 등 생활비 폭등과 후원금이 거의 끊어지는 등 IMF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실상가상으로 무료복지시설을 찾는 노인과 아동들은 더욱 늘어나는 추세여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IMF 사태이후 불교양로원 입주를 희망하는 전화가 상당히 늘고 있으나, 대부분 호적상에 부양의무자가 등재되어 있어 실제 입주는 어려운 형편이다. 생활이 어려워 호적 등 서류상의 문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또 무료급식소인 자비의집에 찾아오는 노인들이 20% 정도 증가한 것도 노인복지의 실상을 보여준다. 반면 유료양로원은 월납입금을 내지 못해 집으로 돌아가는 노인이 점차 늘고있다.

'자비의 전화' 재정난 심각... '불통 위기'

교계 최초의 전화상담기관인 자비의전화(회장 정덕·인파선원장)가 재정난으로 폐쇄의 위기를 맞고 있다. 자비의전화 부회장 진오스님은 10일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교계의 대표적인 봉사단체인 자비의 전화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불교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불자들의 후원을 호소했다. 자비의전화가 재정난에 처한 원인은 후원회비의 급격한 감소.

매월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급료 등으로 7백여만원이 소요되나 후원회비는 1/3수준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다 회장을 비롯 이사들도 IMF환화에 따른 각 사찰의 어려움으로 마음은 있어도 예전 만큼 목돈을 내놓을 수 없는 형편이다. 이에따라 진오스님 등이 임대료를 내지 않는 곳으로의 이전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것도 여의치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지금은 상담실과 사무실 교육장을 갖추고 있으나 상담실만 들어갈 공간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자비의전화는 91년 개동 이후 매년 4천여건의 상담을 통해 자비의 손길을 펼쳐왔다. 또 카운슬러대학을 개설, 지금까지 7백여명에 이르는 상담원을 배출해 교계의 대표적 전화상담기관으로 자리매김 했다. 후원 문의 (02)737-7378.

교계 장학금 전달 잇달아

무애·일념·관음장학회등... 'IMF한파 녹인다' IMF의 한파 속에서도 장학금 불사는 이어지고 있다. 무애장학회(이사장 서돈각)은 17일 오후2시 불교방송 3층 공개홀에서 제4회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이날 제단은 대학생 6명 중등학생 10명등 16명의 불우 학생들에게 세학기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2천7백여만원을 전달한다. 부산의 관음선장학회(이사장 김무상심)도 20일 부산불교신도회 법당에서 승가대 재학 학인스

를 지원하는 듯한 '참조주어, ...봉헌의 촛불이 게 하소서' 하는 부분은 또다시 불교계를 경악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 자료집에서 소개하고 있는 심성·인성 개발 놀이들은 상담교사와 청소년 사이에 널리 알려진 놀이들을 선별했다는 서울시교육

를 찬양하는 듯한 '참조주어, ...봉헌의 촛불이 게 하소서' 하는 부분은 또다시 불교계를 경악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 자료집에서 소개하고 있는 심성·인성 개발 놀이들은 상담교사와 청소년 사이에 널리 알려진 놀이들을 선별했다는 서울시교육

목탁소리

오종욱 (취재1부 기자)

종교편향과 자성론

심성·인성 수련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이 특정 종교에 편향되었다는 일선 교법사들의 지적은 '경약'과 '자성'의 여지를 동시에 주고 있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의 종교편향은 교사 개인의 문제에 기인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선 교육현장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의 종교편향이라는 점에서 우리를 놀라게 한다. <청소년 심성...>에서 '종교편향'으로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은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 △기독교 기도문인 '은혜의 빛 물레에서' 등을 인용한 '촛불의식(2)'의 일부분. 모두 훌륭한 기도문이지만 교육감독기관에서 폐는 자료집에 특정종교

하는 전문 인력과 단체가 없다. "불교계가 청소년 심성·인성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일반인들도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현장에 있는 불자교사들의 말이다. 인성 프로그램 개발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한국인성개발연구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의 종교분포에서 불교가 가장 열세한 것을 보면 불교계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그냥 흘러보낼 얘기가 아니다. 놀이를 통해 해소하는 심성·인성 수련 프로그램은 레크리에이션과는 질적으로 다르며 심리학 등 유관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 개발해야 한다. 그만큼 투자가 필요하다. 다른 종교는 이미 오래 전부터 투자에 나섰던 것이다. 우리가 흥분부터 하지 말자는 이유이다.

(香妃) 천연방향약용식물을 이용한 여성질병의 치료 (香妃)

Advertisement for '香妃' (Xiangfei) natural medicine. It features a list of symptoms, a list of 17 symptoms to check for, and a testimonial from a 58-year-old woman. The product is described as a natural remedy for women's health issues, utilizing natural aromatic and medicinal plants. The advertisemen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manufacturer, Goryeobalsan, and a list of distributors.